

# 조경관련 자격확대 대응 실무형 NCS교육 강화 전략

전효중

전, 산업인력관리공단 수석연구원/현, 조경기술평가사무소 대표

## 1. 들어가며

최근,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에 있어 조경의 직무 분야를 종자,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조경실무경력이 있으면 조경자격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조경계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법이 관련분야와 상의도 없이 진행될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해결방안이 다차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조경자격이 종묘, 원예, 산림등 식물기반의 자격과 유사하다는 정부 부처의 판단은 물론 일반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조경계는 40여년간 달려오는데에 바빠, 그 조경분야의 직무 정체성과 그 직무의 영역을 확보하고 건설분야에 독보적인 특정 직무 분야라는 인식을 심어놓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사견이 드는것도 사실이다.

학생들 입장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대학 4년을 배웠는데, 조경기사자격취득도 힘들고, 회사에 취업을 하면 그 회사에서 다시 일정기간 재교육을 받아야하며,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스펙으로 보충하려는 심리가 팽배하고 휴학은 필수라는 비생산적인인 인식이 대학사회에 일반화되고 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기회에 조경직무에 대한 현실감각을 장착하고 조경직무에 대한 법적, 사회적,업무적 지위를 찾아낼 뿐만아니라, 이를 통해,학생들에게는 취업 후 바로 안정된 직무에 임할수 있도록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적합한 조경 직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적합한 조경직무교육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 2. 조경 및 환경생태 분야의 국가 직무능력 표준(NCS) 개발 내용

NCS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자격기본법 제 2조)으로 업무의 과정보다는 업무의 성공적 수행과 관찰가능한 행동(activity-based)에 초점을 두어 개인보유능력의 양보다는 “능력의 질(Quality-based)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경분야의 국가 직무 능력 표준내용으로 세 분류로 조경설계, 조경시공으로 나뉘며 조경설계는 능력단위 분류로 조경프로젝터개발, 환경조사분석, 조경기본구상, 조경기본계획수립, 조경기본설계, 지형기반시설설계, 식재설계, 조경시설설계, 정원설계, 조경설계관리, 조경설계프레젠테이션, 조경공사비내역서작성, 조경설계도서작성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경시공의 능력단위 분류로는 조경기반시설공사, 수목식재공사, 잔디식재공사, 조경구조물공사, 조경시설물공사, 조경포장공사, 생태복원공사, 입체녹화공사, 실내조경공사, 조경공무관리, 공사현장관리, 공사준공전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환경생태복원 분야의 국가 직무 능력 표준내용으로는 생태복원의 능력단위로는 환경생태 조사 분석, 생태계 종합평가, 생태복원구상, 생태복원계획수립, 생태복원설계, 생태기반시설조성, 동식물상복원, 생태복원사업현장관리, 생태복원사업자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태관리의 능력단위는 생태관리계획수립, 생태계 모니터링, 생태기반시설관리, 동식물상 관리, 생태서비스프로그램운영관리, 생태복원사업평가, 생태관리조직운영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나가며

앞으로 변화하는 제도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위해 각 대학에서는 조경 및 환경생태 분야, 더 나아가서 건설 기술자 등급인정에 따른 변화에 맞춘 교과과정의 개편이 진행되리라 사료되는데, 이 기회에 직무 능력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직시하여 조경 및 환경생태 분야의 공급자 위주의 교육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의 공급을 통해 능력중심의 교육 즉, 할 줄 아는 교육 즉, 직무능력 중심 교육으로 변화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